남기고 갈 이야기

장도영장군과 함께한 파란의 생애 [2]

전속부관 석장石墻 권중은옹의 일대기

▲ 유소년 시절의 권중은옹

▲ 전란시 육군 일등병 시절의 권중은옹

• 6·25전란의 대재앙

1950년 3월에 청량리에 있는 경기농업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9월 학기에 물론 서울대와 같은 일류대학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차, 졸업하고 석 달쯤에 6·25의 대전란이 터졌다.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되어 아비규환에 떨어지고 천지가 판탕의 쑥밭으로 변했다. 젊은 사람은 그대로 있다간 죽거나 끌려간다고 하여 피란 행렬에 떠밀려 나가 섞였다. 그렇게 행렬에 끼여 남으로남으로 걸으며 탈탈 굶거나 조금 얻어먹는 수도 있고 혹은 초근목피를 캐먹으며 18일을 걸어 부산에까지 살아 이르렀다. 도중에 문경새재를 넘을 때에는 가다가 굶어 죽어 육탈이 된 인골이 여기저기 눈에 띠었다.

그러는 동안 권중은옹의 양수리 본가는 비교적 안전하고, 그 부친도 평소 인근에서 인심을 잃지 아니하여 별일은 없었으나, 양수리의 철교와 인도교가 폭격될 우려로 집에서 10여리 떨어진 곳으로 피란한 정도였다. 그러나 젊은 중은옹은 그 고초가 말이 아니었다. 부산으로 고행을 거듭해 흘러들어왔으나 아무 대책이 있을 수 없는 그해 10월쯤에 제2국민병에 입대하였다. 뒤에 악명이 높았던 제2국민병은 당시 정규군의 체제도 갖추지 못했고 별로 역할도 하는 게 없는 일종의 예비군이었다. 옹은 이듬해 제2국민병에서 하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 부산의 가야에 있는 하사관학교 제9대대에 들어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해가 바뀌어 1952년 1월이 되자 부산 가야에 있던 하사관학교가 해산되고 그 병력이 모두 제주도로 이송되어 모슬포에 창설된 육군 제1훈련소에 배속되었다. 이때 옹은 가야의 하사관학교 교육을 받았으므로 하사관은 되지 못하였으나 일등병 계급장을 달고 신병 훈련소의 기간병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해, 1952년 봄에 21세의 중은옹은 전란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처지이지만, 그렇다고 군대의 말단 졸병으로 청춘을 허송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병사의 50프로가 문맹이던 시절, 중등 교육을 이수한 사병에게는 갑종간부후보생을 양성하는 보병학교에 응시하라는 권고가 끊이지 않았다. 중은옹은 이에 응시해 쉽게 합격하였다. 여기에 합격하고 나니 광주 송정리에 있는 육군보병학교에 직접 가서 입교하라는 전출명령이 내렸다. 그런데 제주도 모슬포로부터 군용선을 타고 부산 가야 군용 부두에 닿아 다시 군용열차편으로 광주 보병학교까지 가는 데 10일의 여유를 주는 것이었다. 옹은 이 기간이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집에 들렀다 광주로 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잘하면 집에서 4,5일도 머물 수 있을 것 같았다. 떠나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얼마나 그리운 집인가.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도 더 지난 것만 같이 까마득하게 생각되는 것이 고향집이었다. 게다가 적 치하의 3개월에 이어 1·4후퇴의 대란 등을 또 겪지 않았던가.

편지로는 소식을 전해 듣던 바와 같이 고향 양수리는 전화를 입은 바도 거의 없이 의구하고 집안도 다 무고하니 천행이었다. 그런데 일단 집에 한번 오고 보니 그렇게 편코 안락할 수가 없었다. 이태 동안 겪은 온갖 고초에 비하면 집에서는 그저 가만히 눕거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천국만 같았다. 잠시 그같은 안락에 빠져 있다 보니 날짜가 훌쩍 지나고, 그러고 보니 당최 군대에 돌아갈 마음이 간곳없었다. 순식간에 15일이 경과하였다. 광주 보병학교에 입교할 10일의 기한에서 5일이 지나가 버린 것이었다. 이때 아무래도 미심쩍게 여기던 부친이 그를 불러 앉혔다.

"너 그렇게 군대에서 나와 돌아가지 않으면 탈영자 되는 게 아니냐?"

"옛? 아버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애비가 그럼 그런 것도 모를 줄 아느냐. 네가 보아하니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군대에서 일을 저질렀으면 대관절 무슨 일을 어떻게 그르쳤는지 말을 해 보아라."

옹은 부친이 탈영이라는 군대 용어 등도 알고 있는 데 내심 놀라며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 군에서 무슨 사고를 낸 것도 탈영할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집에 한번 오고 나니 다시 군에 돌아가기가 싫어졌을 뿐이다. 졸병 생활이 고달프고 희망도 없어 장교나 되어 보려고 보병학교 시험을 보아 합격했을 뿐 무슨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다만 집에 한번 와 편해지니 도무지 군에 돌아가기가 끔찍하여 머뭇거리다 입교 날짜를 닷새나 넘기고 말았다는 사정을 말씀드렸다. 날짜를 어겨 놓았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가 된 셈이었다. 부친이 고개를 저었다. 이대로 집에 주질러 앉아 군대 탈영자가 되어서는 이도저도 망치고 앞길이 막힌다. 늦었더라도 어서 군에 돌아가 자수를 하든 어떤 처벌을 받든 치를 것을 치르라는 게 타이르는 부친의 자식에 대한 명이었다. 이에 하마터면 탈영병의 신세가 되어 일생을 그르칠 뻔한 약관의 중은옹은 마음을 고쳐 먹고 발걸음을 다시 군문으로 돌렸다.

그런데 막상 나서 보니 입교 기일을 넘겨 광주 보병학교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이미 전출 조치가 된 제주도의 훈련소로 귀대하는 것도 안될 일이었다. 육군본부로 찾아가 사실대로 말하고 조처를 받기로 했다. 당시 육군본부는 서울이 아닌 대구의 수성동에 있었다. 그곳으로 찾아가 물어물어 갑종간부반이라는 부서에 들어가 담당자인 한 상사에게 찾아온 사정을 실토하였다. 상사가 듣고 나더니 어이가 없어 하며, 그래도 이렇게 육본으로 막바로 찾아와 이실직고하는 용기가 가상하다는 식으로 웃으며 부드러운 낯으로 바뀌었다. 당시 전선에서 장병이 소모품처럼 죽어가는 판에 특히나 장교의 부족이 심각할 때였다. 상사는 입교 미귀니 탈영이니 하는 것은 다 불문에 붙이고 다시 광주 보병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를 발부해 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급 등에 지장이 있을 것은 각오하라 하였다.

새로이 발부받은 명령서를 가지고 광주의 보병학교에 가 무사히 입교가 되었다. 그런데 그러는 바람에 중은옹은 보병학교에 원래보다 3기가 늦어져 23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원래 같이 응시해 합격한 동기생들은 20기로 들어가 훈련을 받고 있었다. 입교 후 6개월의 고된 강압훈련을 받고 1952년 7월 19일에 임관하여 육군 소위가 되었다. 그것도 전선에서 장교가 부족해 훈련의 만기가 되기 전에 당겨 임관이 된 바였다. 보병학교의 훈련과 학과 교육 과정이 고되고 힘들기로 이름났는데, 이는 정규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이수시킬 학과목과 훈련을 반년 남짓에 속성으로 압축시켜 짜내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여기에서도 중은옹은 생래의 우등생으로서 선두 그룹의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런데 보병학교의 졸업 임관과 동시에 옹에게 생각잖은 변신의 기회가 또 왔다. 그 기수로 졸업해 임관된 신임 소위에게 육군항공학교에 응시할 기회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졸업자 200명이 너도나도 다 응시하였다. 임관되어 전선에 배치되면 사실 소모품이 되어 제일 먼저 적의 총알받이가 된다는 것을 누구 하나 모를 리 없었다. 육군항공대에 들어가 비행기로 날아다니면 일선의 소모품 장교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또한 모르지 않는 바였다. 여기에 중은옹도 자동적으로 휩쓸리듯 들어가 응시하였다. 그리고 200명 응시자 중 36명이 합격하였는데 그 중에 물론 옹도 들어 있었다.

<사진 본가 제공·구술 정리 權五焄>

▲ 육군보병학교 23기생 졸업 사진. 1952년 7월 19일의 날짜가 명기되어 있다.

9면에서 계속

유사눌柳思訥을 모함한 혐의로 지목되며 거듭 수난을 겪는다. 태종 17년, 1417년 1월 12일자의 졸기卒記에 임금이 '명하여 소합유 갓으로 징수했던 주포紬布를 권완의 집에 환급토록 하니 권완이 졸하였기 때문이다. 또 부의로 종이 1백 권을 내렸다'고 나온다. 8월 26일에 임금이 이조吏曹에 명하여 공의 옛 직첩을 돌려주라 하고 이듬해 1418년 5월 23일에 직첩을 돌려 받는다. 세종 7년, 1425년 4월 29일의 실록에도 공이 경기관찰사로서 정종定宗과 태종太宗의 사초史草를 관리하지 못한 일로 논죄되고 세종 8년에는 참찬 탁신卓愼의 졸기에 사적이, 문종 1년, 1451년에는 세종의 영릉 신도비 음기陰記를 짓는 일과 관련하여 공의 기사가 나온다. 공은 태종이 임금이 되기 전 고려 때부터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고 예문관 제학이 될만큼 문장과 학문이 높은 경지에 있었는데 말년이 평탄치 못하여 환로가 막히고 탄핵에 시달리다 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참지의정부사, 즉 의정부 참찬에서 그치지 않고 정승의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배위는 정부인貞夫人 선산김씨善山金氏이고 묘소는 경북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송라동 화봉花峰 선영하에 오좌午坐 합폄이다. 1남을 두니 경례敬禮로 문과 참판參判이다.

예천군의 5남 윤綸 : 보첩에 주기注記와 배위에 관한 기사 및 후사 등 일체가 없다.

대략 이와 같은 예천군의 후손은 경기 이천·고양, 경북 문경·예천·의성, 경남 김해·산청, 충북 음성·진천, 전북 정읍 등지에 세거하며 인구 1만 5천여 명을 헤아리고 있다.